

(주)하림

감량개선 TFT 추진 실적 표창장 수여



(주)하림(회장 김홍국)은 감량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문용 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감량개선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현재 (주)하림은 10개의 TFT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각 TFT 조직은 추진 실적과 Action Plan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감량개선을 위한 목적은 첫째로 조기절식, 집중배차, 수송 및 계류시간 축소를 통해 계류감량을 개선하고, 둘째는 절식부터 도계시작까지의 총 소요 시간을 평균 8시간으로 고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감량개선 TFT 시작년도인 2006년에는 감량(3.9%)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연 75억에 달했으나, 올해 7월에는 총 감량률이 2.27%로 개선되는 등 TFT 시작년도 대비 연간 약 30억원 정도의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TF 팀원들의 절식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절식데이터를 HATIS에 구축하고 계류시간을 8~9시간으로 통제하고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량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문용 사장은 “조기절식 실행은 FCR 개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만큼 무절식 농장 판별 프로세스 정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TFT는 종료되지만 어렵게 구축한 프로세스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활동과 개선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본부 수도권사업부 워크숍 개최



(주)하림 3본부 수도권사업부는 지난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광교산에서 워크숍 및 스키십데이 행사를 가졌다.

첫날인 14일 서부 강서사무실서 수도권 각 지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실적발표로 시작된 워크숍을 통해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5일에는 수도권사업부장을 비롯한 지점장, 실무영업담당자까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4시간에 걸쳐 광교산을 등산하는 스킨십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광교산 하산 후 닭볶음탕, 백숙으로 식사를 마친 수도권사업부는 지점별 장기자랑과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남·여직원 모두 참여하는 족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수도권사업부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이문용 사장과 흥운원 3본부장은 상반기의 놀라운 실적은 개개인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며 직원들 하나하나 손을 잡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이문용 사장은 “수도권 사업부가 하반기 목표 초과달성을 물론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사업부장인 장상산 수석부장은 “2010년 수도권사업부 시무식은 제주 한라산 정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반기 목표를 초과달성하자”고 말했다.

2본부, 상반기 동아리 자랑대회 개최



(주)하림 2본부는 현장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의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8월 7일 이국진 본부장을 비롯해 2본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리 자랑대회를 개최했다. 45개 동아리(물류 3개 포함)중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동아리가 결선에 올라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결선에 올라온 6개 동아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개선과 제안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동아리 자랑대회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발표 실력들이 향상되었으나, 그 중에서 ‘컨베이어 벨트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란 개별 개선과제를 준비한 ‘올빼미’(생산 2팀)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전진’(물류), ‘백두대간’(공무환경)팀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첫걸음’(생산지원), ‘얼치기’, ‘거문고’(생산 1팀)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자랑했다. 비록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다른 동아리들도 전년보다는 향상된 자료 준비와 발표 스킬로 연말에 있을 전사 동아리 자랑대회를 대비하고 있다.

육가공 공장 출입구 리모델링

(주)하림 3본부 육가공 공장에 대한 위생수준이 한단계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육가공 공장 1층 작업장 출입구가 오래되고 낡아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3층 출입구 개선공사를 통해 삼계탕 HACCP 지정 작업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고 (주)하림의 위생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공사가 위생수준을 한단계 도약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출입구는 작업자가 출근해서 일하기 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위생관리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



회·원·자·소·식

에 출입구 위생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작업자의 위생관리 의식고취 및 현장의 위생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되기도 한다.

3본부 공무팀에서는 빠르고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휴일에도 전 직원이 출근하여 공사 지원 및 독려를 하고 있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은 “작업 현장 출입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출입구 리모델링으로 인해 보다 깨끗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새단장 중

(주)하림 인터넷 홈페이지가 획기적인 디자인 개편 등 새롭게 리뉴얼해 올해 말 네티즌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구 홈페이지의 단조로운 디자인과 기존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란 부족, 신속한 고객응대 시스템 노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방법 등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전면 개편으로 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는 (주)하림의 신제품 홍보와 함께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도 연계할 계획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고객 경험 패턴에 따른 설계 등 고객 중심의 경험적 정보 설계와 제품 콘텐츠 감성적 전달 강화, 고급화된 그래픽 인터페이스 적용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치, 신뢰,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이미지 전달, 고객 체험(경험)에 의한 기업 이미지

전달, 지속적 브랜드 전달을 통한 브랜드 로열티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주)하림은 올해 말 새롭게 단장하는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과 온라인 채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고객응대를 통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니커

육가공 추석 선물세트 판매

명절 때마다 최고의 인기를 끌면서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주)마니커(회장 한형석)의 육가공 선물세트가 올 추석에도 고객을 찾아간다.

(주)마니커F&G에서 내놓은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육가공 종합세트와 이송금 춘천닭갈비세트 등 인기제품으로 구성돼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꾸몄다.

(주)마니커 육가공 추석 선물세트는 오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 동안 판매하며, 판매 기간 동안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택배로 배송된다.

■ 구성

- 육가공 종합세트(40,000원) : 남도떡갈비(490g), 남도 닭주물럭(460g), 치킨너겟(1kg), 오도도 닭불갈비(1kg), 지글지글 양념에 재운 바비큐(670g) 등 각 1개씩
- 이송금 춘천닭갈비세트(45,000원) : 이송금 춘천닭갈비(400g) 4개, 남도떡갈비(490g) 1개, 남도 닭주물럭(460g) 1개, 닭볶음탕(500g) 1개

■ 주문처 : (031)899-1161 (주)마니커F&G



임직원들에게 도서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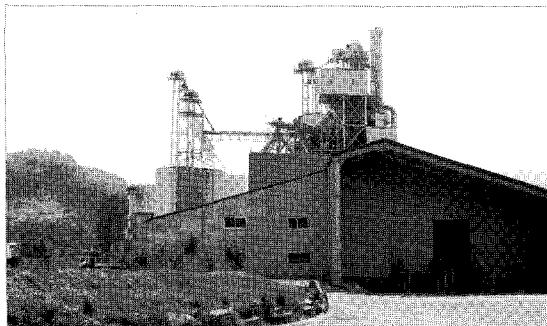
수시로 온라인교육과 외부강사 초청강연 등을 시행하여 공부하는 사내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는 (주)마니커가 모든 임직원들에게 도서를 배포하여 면학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주)마니커가 이번에 배포한 책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마케팅 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거나 사소한 관심이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깨진 유리창을 예로 들어 역설하고 있다.

이전에도 (주)마니커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배포했는데, 향후에도 임직원들의 자질향상과 공부하는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도서 배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체리부로

(주)한길바이오에서 사장단 회의 개최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지난 8월 14일 (주)한길바이오에서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장 견학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사별로 전월 경영 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각 사업 영역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공유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에 위치한 (주)한길바이오는 구)에스와이사료(주)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3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된 (주)체리부로의 자회사로써 지난 8월 1일 본격 가동을 시작하여 엄선된 재료와 정밀한 배합비를 바탕으로 올해 50,000톤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양계 사료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월등하며 계획 생산이 가능하여 (주)체리부로 가족의 농가에게 더욱 고품질의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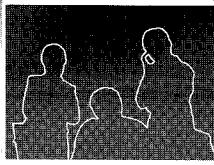
진천 지역 농민 독기 수박 판매



(주)체리부로는 최근 수박 값 폭락으로 수박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진천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수박 500통을 구입했다.

(주)체리부로는 수박 재배 농민의 원가 보존을 위해 고가에 수박을 매입하여 직원들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다.

이로 인해 수박 재배 농가는 판매의 어려움을



Monthly Korean Chicken MKC

회·원·사·소·식

덜었으며, (주)체리부로 직원 및 주변 주민들은 맛 있는 수박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주)목우촌과 마니커

새로운 CI 선보여



(주)마니커의 협력회사 이자 삼계(蔴鷄)생산 전문업체인 (주)목우촌과 마니커(대표이사 김재곤)가 최근 새로운 CI를 선보였다.

이번에 새로 제정한 CI는 (주)목우촌의 'M'과 (주)마니커의 'M'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3개의 원 중에서 노랑색 원은 마니커를, 빨간색 원은 목우촌을, 초록색 원은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서 두 개의 회사가 뭉쳐 하나의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올풀

경상북도 도지사 방문



지난 8월 25일 지역 산업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주)올풀(대표이사 변부홍)을 방문했다.

이날 도지사, 농정국장, 시장, 시의장 등이 함께 방문, 근로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주)올풀의 위생적이고 깨끗한 닭고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시찰했다.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소식 보내실 곳

- 최재문의 : (031)707-5722~4
- 팩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

-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